

독서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와 의미*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The Effect and Meaning of Reading Program for Alienated Children : Focused on 'The Reading Program with Library'

이 연 옥(Yeon-Ok Lee)**

노 영 주(Young-Joo Noh)***

< 목 차 >

I. 서론	2.4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요구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III. 아동의 독서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1.2 선행연구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의 관찰
1.3 연구대상과 방법	3.1 아동의 책과 독서에 대한 관심
II.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경험	3.2 아동의 변화가 관찰
2.1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평가	3.3 아동의 도서관에 대한 경험과
2.2 아동의 독서태도와 정서	관심
2.3 아동의 도서관이용과 경험	IV. 결론

초 록

이 연구에서는 독서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운영하는 '2011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참여한 소외계층 아동 1,6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독서프로그램의 효과와 의미를 다각적으로 고찰하고자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관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독서프로그램 참여 후 소외계층 아동의 독서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아동의 정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아동의 경험과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키워드: 독서프로그램, 어린이서비스,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소외계층 아동, 취약계층 아동, 저소득층 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and meaning of reading program for alienated children. To accomplish this, this study collected its data through surveys and observations with 1,643 children that participated in the reading program by Library of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and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with librarians, instructors and representatives of agencies that related to the program.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improvements in children's reading interests, reading attitude and affect in the program. And children's experiences and interests in libraries were increased after the program. Children evaluated affirmatively the program and children's demand for the program was increased.

Keywords: Reading program, Children services,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Library services for alienated children, Alienated children,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Children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ading program with library'

* 이 연구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2011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평가'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idisfeel@hanmail.net) (제1저자)

*** (사)가족친화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anytime27@naver.com) (공동저자)

• 접수일: 2012년 2월 20일 • 최초심사일: 2012년 2월 28일 • 최종심사일: 2012년 3월 23일

I.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소외계층 아동은 일반적으로 사회계층상으로는 하층 아동이면서 경제적으로 극빈한 빈곤가정의 자녀, 소년소녀 가장이나 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아동, 이질적 문화를 소유한 이민자, 역이민자, 탈북자, 외국인근로자 등의 다문화가정의 자녀, 지역적으로 도시의 빈곤지역, 농어촌 벽지거주 아동, 불리한 여건의 장애아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보호와 교육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아동이 이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인 격차로 저소득층 가정이 크게 증가하여 빈곤아동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성장하는 빈곤아동들은 인지발달이 느리고 학교생활 적응능력이 저하된 특성을 보이며, 학업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¹⁾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경우 생활환경,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각종 교육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문화실조 또는 학습부진을 경험하기도 한다.²⁾ 또한 언어능력의 측면에서도 빈곤아동들은 중상류층 아동들에 비해 언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³⁾, 이러한 언어능력 격차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커져 아동기의 학업성취를 낮추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이 겪을 수 있는 빈곤 환경은 아동의 건강한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에서 경험하는 빈곤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동의 성인역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⁵⁾ 나아가 빈곤아동은 높은 수준의 품행장애, 우울증, 사회적응력 결핍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⁶⁾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도 언어발달이 일반 아동에 비해 낮으며 이러한 언어능력의 부족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야기하고 대인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습부

1) 김광혁,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 2006 No.4(2006), pp.157-161; 임세희,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Vol.34(2007), pp.55-78.

2) 이소희·유미숙, 아동복지(서울 : 형설출판사, 2000).

3) 유희정, "빈민지역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 한국영유아보육학, 9(1997), pp.93-121.

4) 이경렬, 저소득층 가정 어머니-유아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과 유아의 언어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5) 정문자·어주경,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권 2호(1999), pp.21-40. ; 박현선·정익주·구인회,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58권 2호(2006), pp.303-330.

6) 허인영, 빈곤결손가정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1999).

진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⁷⁾ 이에 더해,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대인관계형성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⁸⁾

이처럼 빈곤을 비롯한 아동이 처한 취약한 환경은 아동의 언어, 학습, 정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 작용을 하고 특히나 아동이 어릴수록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후의 발달양상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⁹⁾ 따라서 소외계층 아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아동기 초기에는 아동의 인지적 및 사회정서적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며, 부모 및 가정학습환경과 아동양육환경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개입 및 투자도 초기에 이루어질수록 그 효과 및 효율성이 높아지며 소외계층 아동이 당면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⁰⁾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소외계층 아동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 문화,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공공도서관은 사회 공공기관의 하나로 언어, 경제, 연령, 국적, 인종, 신체 등의 장벽으로 인해 도서관서비스를 향유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개입과 지원도 당연한 의무가 된다. 도서관이 가진 독서자료, 독서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는 지원과 개입은 소외아동의 독서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언어, 학습, 정서, 문화적인 지원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2006년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독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독서활동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외계층의 독서지원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일선 공공도서관의 관심과 지원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계층 아동의 독서를 지원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은 우리 사회를 비롯한 도서관계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은 도서관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독서태도와 습관형성을 돕고,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도서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16개 대표도서관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도는 30개관, 2009년도 50개관, 2010년도에 75개관을 대상으로

7) 김효진,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분석," 보건복지포럼(2008. 5), pp.33-36. ; 조혜영 외,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8) 오성배,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권 3호(2005), pp.61-83 ; 박순희,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호(2009), pp.125-154. ; 정하성·우룡,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2007.

9) Brooks-Gunn·Duncan,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Vol.7 No.2(1997), p.58. ; Mcloyd,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53, No.2(1998), pp.185-204.

10) 김효진,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분석," 보건복지포럼(2008. 5), pp.33-36.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1호)

운영하였으며, 2011년에는 9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도서관이 소외계층 아동이 밀집한 기관(보육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다문화아동지원기관 등)을 방문하여 독서프로그램을 24회 운영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와 도서를 지원한다. 2011년 현재 이 사업은 5년차에 접어들고 있어 이 사업에서 진행하는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 경험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작업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의 성과와 의미를 확인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도서관서비스의 당위성과 이 사업이 지속해야 하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서 전개한 독서프로그램이 소외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와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독서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소외계층 아동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경험의 가치와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독서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은 주로 독서치료 영역에서 전개되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나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¹¹⁾ 또한 장애아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¹²⁾ 이들 연구에 따르면 소외계층 아동에게 적용한 독서치료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독서치료는 책에 제시된 여러 상황이나 내용에 독자가 상호작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소외계층 아동의 긍정적 정서와 인격형성,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서 선호되는 방법은 실험적 연구로, 주로

-
- 11) 이지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 명창순, 독서요법을 통한 저소득층 이혼가정의 아동의 친사회성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박지연, 독서치료가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2007. ; 조효숙·이진숙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우울·자아존중감·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2권, 3호(2008), pp.105-123. ; 이수정·이현림,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공감능력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7권, 2호(2008), pp.223-230. ; 이남순, 동시를 활용한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최정미, 독서요법을 통한 시설아동의 심리와 행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2. ; 김윤희,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시설아동을 위한 독서치료의 효과 : 우울, 수치심 및 죄책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이선영, 글있는 그림책을 이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 이춘지, 시설아동의 자기표현능력에 대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효과 분석,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 12) 하정혜, 독서치료가 자폐성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이수향, 장애아동의 형제를 위한 독서치료가 형제관계와 형제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대학원, 2007.

독서치료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독서치료를 처치한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하여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전형적 양적 연구의 경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¹³⁾

한편,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독서프로그램이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¹⁴⁾ 이들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독서활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및 독서능력 발달을 비롯한 아동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연구방법은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언어능력을 비롯한 사회성에 대해 사전사후 변화정도를 측정하는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가장 최근에는 조미아가 '2009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참여한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바 있는데 연구결과, 독서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독서능력 향상에 부분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 연구에서도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유의미한 변화와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렇듯, 시설아동을 비롯한 저소득층 아동, 장애아, 다문화가정 아동 등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대다수 논문들은 독서치료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또한 자아존중감, 사회성 정도 등의 아동의 정서적 면이나 언어 및 독서능력의 면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수치적으로 검증하는 양적연구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양적연구에서는 독서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의 아동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비롯하여 변화과정이나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을 병행하여 독서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소외계층 아동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경험의 가치와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1.3 연구대상과 방법

가.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 소외계층 아동이라 함은 저소득층아동, 시설아동, 다문화가정아동, 장애아동으로, 주로 소외계층 아동이 밀집된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및 영아원, 어린이집, 다문화아동지원기관,

13) 최정미의 연구에서는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참여관찰방법을 활용해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최정미, 독서요법을 통한 시설 아동의 심리와 행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2).

14) 선애순·권순황, "그림동화책 읽어주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2권, 2호, (2010), pp.255-272 ; 조미정, "독서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독해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18권, 3호, pp.213-229, 2009 ; 김민화·남명자·고태순·정지나, "그림책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이 아동의 언어, 사회성, 자아개념 발달과 가정환경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 문학교육 연구, 11권, 1호(2010), pp.67-84.

15) 조미아, "소외된 어린이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효과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권, 2호(2010), pp.199-220.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1호)

장애아지원기관, 기타 모자원, 청소년기관, 복지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2011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1,64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 1,149명으로 전체 아동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어 어린이집 아동이 145명, 다문화지원기관의 아동이 124명, 보육원 및 영아원 아동이 105명이 참여하였으며, 장애아는 총 46명이 참여하였다. 기타 모자원, 청소년기관, 복지관의 아동이 74명 참여하였다. 아동은 초등학생이 1,294명(78.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가 311명(18.93%), 청소년은 38명(2.31%)이 참여하였다.

〈표 1〉 2011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참여기관 및 아동 현황

구분	기관수	아동수(비율 %)
지역아동센터	56	1,149(69.93)
보육원 및 영아원	9	105(6.39)
어린이집	5	145(8.83)
다문화아동 지원 기관	8	124(7.55)
장애아 지원기관	6	46(2.80)
기타(모자원, 청소년기관, 복지관)	6	74(4.50)
합계	90	1,643(100.00)

〈표 2〉 2011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참여아동의 구성

구분	인원수	비율(%)
유아	311	18.93
초등학생	1,294	78.76
청소년	38	2.31
합계	1,643	100.00

나. 연구방법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장방문 및 관찰, 심층인터뷰, 활동보고서를 활용한 질적연구방법과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참여한 아동과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양적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참여한 90개의 기관 중 지역별, 장애기관, 다문화기관,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참여기관 유형별로 안배하여 15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을 방문하였다. 특히, 현장방문에서는 주로 프로그램에서 아동의 참여와 반응을 위주로 살펴 보았다. 현장방문과 아울러 아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반응, 변화에 대해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와 심층인터뷰 하였다.

둘째, 사업에 참여한 전체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들이 제출한 활동보고서를 활용하였다. 활동보

고서는 기관사전보고서, 기관중간보고서, 강사활동보고서, 참여아동의 수기가 포함된 운영사례보고서를 포함한다. 연구팀은 비공개카페를 개설하여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90개 도서관의 강사로 하여금 월1회 일지형식의 강사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강사활동보고서는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 활동내용과 과정, 프로그램에서의 아동들의 경험 및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또 90개 참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특징과 운영 방향, 기관에서의 아동의 일상생활, 참여 아동들의 특이 사항을 사전보고서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중반 시점에 참여아동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기관 담당자가 아동의 변화에 대한 관찰과 느끼는 점을 파악하고자 기관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의 경험과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목소리와 경험이 골고루 담겨 있는 90개 도서관의 운영사례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셋째, 사업에 참여한 아동 1,6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아동의 경우 읽고 쓰기가 서툴거나 설문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시 기관 담당자 및 강사가 아동에게 물어 대신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643명의 참여아동 중에서 1,052명의 아동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아동의 설문 회수율은 64.0%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서는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평가와 요구, 아동의 독서태도와 정서적 측면, 도서관(사서)에 대한 경험과 관심을 알아보고자 이와 관련한 세부 항목을 다음의 <표 3>과 같이 구성하여 이를 조사하였다.

<표 3> 아동대상 설문 조사항목

항목	세부항목
프로그램	책읽기 프로그램이 생겨서 좋았다
	내 책이 생겨서 좋았다
	책읽기 프로그램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선생님이 책을 읽어 주어서 좋았다
독서 태도 및 정서	책읽기 선생님은 우리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예전보다 더 자주 책을 읽고 책이 좋아졌다
	책읽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가 예전보다 활발해진 것 같다
도서관 및 사서	책읽기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친구들과 서로 친해졌다
	나는 책읽기 프로그램에서 공공도서관에 처음 가보았다
	나는 책읽기 프로그램에서 사서 선생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책읽기 프로그램 기간 중에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았다
	도서관 회원증을 갖게 되어서 좋았다
요구	도서관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빌리고 싶다
	내년에도 책읽기 프로그램에 계속 하고 싶다
	책읽기 프로그램이 끝나고 선생님과 헤어지는 게 아쉽다

넷째, 사업에 참여한 90개 도서관의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 총 27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책과

독서에 대한 태도, 정서적 측면, 도서관(사서)에 대한 경험과 인식, 기타 아동의 변화에 대한 이들의 관찰과 경험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그 결과 사서 87명, 강사 87명, 기관 담당자 87명으로 부터 총 261부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질문지 회수율은 93.2%이다.

II.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경험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서 아동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며, 이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과 효과는 무엇인가를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에 대한 관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결과와 아동이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 후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2.1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평가

아동들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1,052명 아동 중 87.6%(922명)가 ‘책읽기 프로그램이 생겨서 좋았다’고 하였으며, 아동의 90.5%가 ‘내 책이 생겨서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89.9%는 책읽기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 평가를 한 아동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다. 89.1%의 아동들은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어서 좋았다’고 하였으며, 90.4%의 아동들이 ‘책읽기 선생님은 우리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표 4〉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평가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책읽기 프로그램이 생겨서 좋았다	922	87.6	121	11.5	9	0.9	1052	100
내 책이 생겨서 좋았다	952	90.5	91	8.7	9	0.9	1052	100
책읽기 프로그램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946	89.9	94	8.9	12	1.1	1052	100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어서 좋았다	937	89.1	104	9.9	11	1.0	1052	100
책읽기선생님은 우리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951	90.4	88	8.4	13	1.2	1052	100

특히 ‘내 책이 생겨서 좋았다’ 항목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책을 선물한다는 이 사업의 취지가 아동들을 책으로 초대하는 지름길임을 보여준다. 이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수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쁜 서울말로 그림책을 읽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책을 읽고 나서 종이접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서 더 재미있는 거 같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그림책을 주시는 거였다. 새 책이 내 거라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 오빠는 5학년이라서 수업도 못듣고 책도 못받았다. 오빠에게 조금 미안했지만 나는 내 새 책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았다. 자꾸만 도서관 선생님 오시는 날이 기다려졌다(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3학년).

처음에는 싫었지만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많이 주시고 책을 읽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책이 너무 좋아졌다. 난 이 수업을 하면서 많은 발표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발표해보기, 다른 사람의 말 들어보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그냥 책을 읽으면 다 잊어 버릴텐데, 도서관에서 책을 주셔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니 기억에 훨씬 많이 남는다. 책을 읽고 알게 된 이 수업을 다음에도 또 하면 좋겠다(공주도서관, 3학년).

또한 주간보고서나 중간보고서에 감사나 기관 담당자들이 전하는 아동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독서프로그램이 주는 도움'이 잘 드러난다. 한글을 모르던 아이가 '이제는 떠듬떠듬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긴 책도 읽는다'고 자랑하던 아이도 있었고, '국어성적이 올랐다'는 아이, '이제는 학교에서 독후감 쓰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아이, '학교에서 독서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다. 2학년 어떤 학생은 프로그램 후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다른 책을 갖고 와서 가르쳐 주세요. 전에 학교 선생님이나 보육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라고 썼다.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난 것은 처음 이었다"는 이야기를 쓴 학생도 있었다. 이는 모두 책과 가까워지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우리 보육원에는 가르쳐주는 것이 많아요.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캠프도 같이하고 학교공부를 도와주는 수업도 있어요. 김○○선생님과 안○○선생님(사서)이 오셔서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라는 큰 글씨도 걸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다른 책을 갖고 와서 가르쳐 주세요. 전에 학교 선생님이나 보육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파주보육원, 2학년).

나는 항상 책을 잘 읽지 않아서 꾸중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감동적이고 새로운 책들을 읽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특히 '종이밥'이라는 책을 선생님이 꼭 미리 읽어오라고 하셔서 집에서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책을 읽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엄마 아빠 안보시게 얼른 뒤돌아서 눈물을 닦았다.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난 것은 처음이었다. 책읽기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심어주고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준 것 같다. 그 동안의 수업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진산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 5학년).

2.2 아동의 독서태도와 정서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이 아동의 독서태도와 정서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이를 위해 참여아동에게 3 가지 지표(예전보다 더 자주 책을 읽고 책이 좋아졌다/책읽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전보다 내가 활발해진 것 같다/책읽기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친구들과 서로 친해졌다)를 제시하여 아동이 직접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아동의 독서태도와 정서에 미치는 효과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예전보다 더 자주 책을 읽고 책이 좋아졌다	873	83.0	167	15.9	12	1.1	1052	100.00
책읽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가 예전보다 활발해진 것 같다	819	77.9	217	20.6	16	1.5	1052	100.00
책읽기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친구들과 서로 친해졌다	779	74.0	259	24.6	14	1.3	1052	100.00

<표 5>을 보면, 아동들은 책읽기 프로그램 참여 이후 “예전보다 더 자주 책을 읽고 책이 좋아졌다”라는 항목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1,052명 중에서 83%에 해당하는 873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부정적인 대답은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책에 대한 태도가 프로그램 참여 이후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아동의 직접적인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참여아동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책읽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전보다 내가 활발해진 것 같다”라는 항목에 77.9%의 아동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책읽기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친구들과 서로 친해졌다”라는 항목에는 74.0%의 아동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아동의 2/3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아동의 다음 이야기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재미있게 수업하고 예전보다 나는 활발해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새로운 동생들도 만나서 좋았던 거 같아요. 선생님과 또 만나면 제가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이클레이, 북아트, 동화구연 모두 기억에 남고 좋았어요. 새로운 친구도 만나서 친해지고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재미있었어요. 자전거 타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오는 길이 정말 즐거웠어요.

2.3 아동의 도서관 이용과 경험

다음으로 독서프로그램이 아동의 도서관 이용과 경험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를 알아보았다.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도서관에 처음 가보았다고 응답한 아동이 541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아동의 5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아동의 반 이상이 공공도서관을 처음 이용한 셈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매개가 되어 아동들은 '사서'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점도 주요한 특징으로 드러난다. 아동의 70.1%는 '프로그램에서 사서선생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바로 이 프로그램이 아동들 인생의 첫 사서를 만나게 해주는 셈이다.

이에 더해, 아동의 57.6%가 '책읽기 프로그램 기간 중에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았다'고 답하였다. 책읽기 사업의 목표 중의 하나는 소외계층 아동의 도서관경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독서를 고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책읽기 사업 기간 중에 아동의 반 이상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였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외계층아동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회원증을 만들고, 책을 빌려보며, 도서관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도서관경험을 통해 독자로, 도서관의 주요 고객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참여 도서관의 주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보다 더 많은 아동이 도서관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아동의 57.3%가 "도서관회원증을 갖게 되어서 좋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서관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빌리고 싶다"고 응답한 아동은 8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보면 책읽기 사업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은 아동의 책과 도서관에 대한 경험을 확대하고 사서에 대한 인식을 확대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도서관 이용에 대한 요구와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아동의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요구와 희망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는 참여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의 주요한 몫으로 남는다.

〈표 6〉 아동의 공공도서관 이용경험에 미치는 효과

구분	그래요		아니요		무응답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책읽기 프로그램에서 공공도서관에 처음 가보았다	541	51.4	494	47.0	17	1.6	1052	100
책읽기 프로그램에서 사서선생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740	70.3	295	28.0	17	1.6	1052	100
책읽기 프로그램 기간 중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았다	606	57.6	429	40.8	17	1.6	1052	100
도서관회원증을 갖게 되어서 좋았다	603	57.3	412	39.2	37	3.5	1052	100
도서관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빌리고 싶다	907	86.2	115	10.9	30	2.9	1052	100

2.4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요구

마지막으로, 78.2%의 아동들이 책읽기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 아쉽다고 응답하였으며, 85.1%의 아동들은 내년에도 책읽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표 7>) 내년에도 책읽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이유를 아동들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612명이 응답하였다(<표 7>). 이 중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책읽기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좋아서'로 전체 답변의 63.24%(387명)를 차지한다. 예를 들면, 아동들은 "독서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요", "재미있고 좀 더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또 하고 싶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유아의 부모는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독서수업 있는 날을 먼저 챙기고 기다려요."라는 말로 책읽기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한다.

<표 7> 아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구분	그래요		아니요		무응답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책읽기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 아쉽다	823	78.2	209	19.9	20	1.9	1052	100.00
내년에도 책읽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895	85.1	145	13.8	12	1.1	1052	100.00

또한 47명(7.68%)의 아동들은 내년에도 또 하고 싶은 이유를 '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서'라고 하였으며, 35명(5.72%)의 아동들은 '책읽기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서' 라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면, "공부에 도움이 된다", "국어책을 잘 풀고 빨리 말할 수 있으니까", "책을 읽으니 지식이 많이 쌓이고 좋은 점을 얻을 수 있어서", "읽기능력이 향상되어서", "한글공부, 발음공부에 도움이 되어서"라는 응답으로 책읽기가 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다시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뿐 아니라 아동들은 책읽기 프로그램이 자신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이 이유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싶어 했다. 일부 아동들은 "내가 더 활발해져서", "책을 읽으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차분해져서", "자신감이 생겨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 꿈이 생겨서" 라고 대답하였다. 또 한 아동은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 수 있고 내가 했던 나쁜 행동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참여 아동의 부모는 "아이들 독서활동이나 정서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내년에도 또 하고 싶어요"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33명(5.72%)의 아동은 '책을 많이 읽게 되어서'라고 하였으며, 32명(5.39%)의 아동은 '선생님이 좋아서'라고 하였다. 30명(4.90%)의 아동은 그 이유를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또 프로그램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이 좋아서 라고 응답한 아동도 23명(3.76%)으로 나타났다.

〈표 8〉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이유

구 분	빈도	비율(%)
책읽기 프로그램(수업)이 재미있고 좋아서	387	63.24
책을 선물로 받아서	47	7.68
책읽기가 도움이 되어서	35	5.72
책을 많이 읽게 되어서	33	5.39
선생님이 좋아서	32	5.23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어서	30	4.90
다양한 활동을 해서	23	3.76
기타	25	4.08
계	612	100.00

이외에도 기타 다양한 기타 의견들이 나왔다. “공부보다는 책읽기가 더 좋아서/공부가 아니니까/공부를 안 할 수 있어서”라는 의견도 있었고, “책읽기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책을 읽는 일이 거의 없어서”라고 응답한 아동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소외계층 아동들에게는 책읽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요구’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부응도 참여 공공도서관의 주요과제로 남는다.

Ⅲ. 아동의 독서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의 관찰

다음으로, 책읽기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에 참여한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의 아동에 대한 관찰과 경험에 대해 면담한 결과와 설문결과,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들 자료에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것과 그로 인한 아동의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3.1 아동의 책과 독서에 대한 관심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아동의 독서와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 프로그램이 아동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는지를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질문해보았다. 그 결과 사서의 98.8%, 강사의 99.1%, 기관 담당자의 97.7%가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9〉 아동의 독서에 대한 관심 고조 여부

구분	사서		강사		기관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61	70.1	64	61.0	55	63.2
그렇다	25	28.7	40	38.1	30	34.5
보통이다	1	1.1	1	1.0	1	1.1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0	0.0	0	0.0
무응답	0	0.0	0	0.0	1	1.1
합계	87	100.0	105	100.0	87	100.0

아동의 독서와 책에 대한 관심은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의 관찰과 경험을 토대로 한 진술에서 보다 다양하고 풍부히 드러났다. 아동들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기관 담당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전후로 아동들의 일상생활에서 책과 독서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처음에 기관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이곳의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책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책을 읽더라도 만화책만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기관 담당자들의 이야기가 달라졌다. “혼자 한쪽에 처박혀 책을 읽는 아이들을 보게 된다. 의외다.”,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며, 책과 담쌓고 지내던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고, 스스로 책꽂이에서 책을 찾아 읽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하였다. 또한 만화책만 보던 아이들이 다양한 동화책을 읽으며 재미있다고 하는가 하면, 평소에 책을 읽지 않고 게임만 하던 아이가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기관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독서기록장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책 읽고 기록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나 청소당번을 빼준다는 이야기를 해야 책을 읽었는데 프로그램을 한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책꽂이에서 책을 찾아 읽을 때 많이 변했구나 생각합니다(보리수지역아동센터 담당자).

처음에는 책이 꽂혀있어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책보다 친구들과 밖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 책읽기 프로그램이 거듭되며 점차 책을 가지고 와 읽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먼저는 책 중에서 선생님과 함께 읽었던 책 위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읽었던 책을 계속 읽어 달라고 하며 학교에서도 도서관에 자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책은 재미있고 딱딱하다고 생각하던 아이들이 책이 재미있다고 느끼고 있다(우리하도지역아동센터 담당자).

또한 기관에서의 평소 생활에서 참여 아동들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다는 점도 주요한 변화

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아이들끼리 읽은 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며,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꽃이름, 음악가 등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아이들은 책 속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난 잎처럼 되고 싶어.” 아이들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책 속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넌 꼭 빅토르갈에”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했다(유성도서관 운영사례보고서).

이에 더해, 아동들의 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강사에 대한 기다림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기관 담당자에 따르면, “선생님 난 하기 싫어요. 왜 해야 해요?”라며 프로그램을 거부하던 아이가 “선생님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어요. 또 언제 해요”라는 기다림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프로그램 시작되기 전에 그날 진행할 책을 미리 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띄고,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의 프로그램에서는 시작시간보다 일찍 와 엄마와 함께 책을 읽으며 기다리는 가정이 늘었다는 이야기에서도 아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잘 보여준다.

수업이후 다시 책을 보며 이야기도 나누고 저학년들은 서로 선생님 흉내도 내면서 수업에 대한 관심을 표현합니다(태인지역아동센터 담당자).

매주 이 프로그램과 강사선생님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책과 만나게 될까 궁금해 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책을 펼칩니다(진전어린이집 담당자).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한 강사의 이야기에서도 책과 독서에 대한 아동들의 직접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강사들은 프로그램 시작 전에 게임을 하고 있던 아이들이 많았는데 프로그램이 거듭될 수록 책을 읽고 기다리던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게임하러 달려가기가 바빴는데 책을 읽고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강사가 방문하면 수업시작 되기도 전에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주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인사가 되었는가 하면, 자신이 받은 책을 소중히 다루며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 동생에게 읽어주었다며 이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음 주에 다룰 책을 미리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책은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읽었던 책을 또 읽어달라고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강사의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참여아동의 책과 독서에 대한 관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이 그리 까불고 제각각 이야기 하다가도 책만 읽으면 조용해진다. 처음 독후활동 때에는 2~3 명의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못해요'를 남발했지만 지금은 옆 친구 오빠 언니에게 서로 도움을 받아 가며 무난히 해낸다. 기본 책 말고 한 권 더 챙겨 가는 모습도 보인다. 아이들은 책 읽는 것이 이전에는 '별'이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읽는다고 말하여 스스로 뿌듯해 한다(제주송악도서관 강사).

사서들의 관찰경험에서도 책과 독서에 대한 아동들의 변화가 나타난다. 경상북도구미도서관 사서는 도서관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아이들이 책과 가까워진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놀란 것은, 아이들이 자료실 구경을 하면서 많은 책을 보고 좋아하고, 자신이 읽었던 책을 자랑하는 친구도 있었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수업에 사용했던 책들이 서가에 꽂혀 있는 것도 신기해했다. ...이번 도서관 방문에서 책읽는 시간을 지루해하는 아이들이 없는 걸 보니 지난 4개월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경북 구미도서관 사서).

3.2 아동의 변화가 관찰

독서프로그램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참여아동들에게서 이 프로그램 이후 '변화'가 관찰되었는지의 여부를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 모두 프로그램 전후로 아동의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응답하였다. 94.3%의 사서와 강사, 93.1%의 기관 담당자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10〉 아동의 변화 여부

구분	사서		강사		기관	
	빈도	%	빈도	%	빈도	%
예	82	94.3	99	94.3	81	93.1
아니오	2	2.3	5	4.8	2	2.3
무응답	3	3.4	1	1.0	4	4.6
합계	87	100.0	105	100.0	87	100.0

프로그램 계획서를 비롯하여 초기의 강사보고서와 기관 담당자의 사전보고서에 실린 참여아동의 특징에 대한 평가와 묘사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였다. 참여아동들이 일반아동보다 산만하다, 집중력이 없다, 공부에 흥미가 없다, 읽기와 쓰기능력이 떨어진다, 자기표현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후반으로 갈수록 아동들에게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

가. 프로그램 참여태도가 달라졌다

우선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참여아동들의 산만하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참여에 소극적인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점도 주요한 변화로 나타났다. 다음의 강사들의 진술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산만하여 책을 읽어주다 멈추기를 반복하며 조용히 시켰지만 수업이 거듭될수록 귀 기울여 듣고 누군가 소음을 내면 아이들이 서로 조용히 하라며 분위기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무안공공도서관 강사).

○○는 거칠고 좀 제멋대로인 아이다. 처음 ○○가 프로그램에 들어왔던 날은 정말 힘들었다. 빛그림을 보고 큰 책을 읽어주는데, 도무지 집중을 하지 않았다. 의자에서 바닥으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집중하는 다른 아이들을 건드리거나 괴롭히기도 하며 방해로 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도 책에 집중해 준다. 의자에 딱 붙어 앉아 읽어주는 책에 시선을 쫓기도 하고, 그림이나 글쓰기도 곧잘 한다. 가끔 동생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서 방해를 하면 “조용히 해라”며 훈계를 하기도 한다(평창대화공공도서관 강사).

나. 자기표현이 좋아졌다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좋아졌다는 점도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나타난 아동의 주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강사 및 기관 담당자들은 프로그램 초반에는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것이 소극적이었고 이를 어려워하였으나 프로그램 후반으로 갈수록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그림, 글, 말로 표현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으며, 표현 내용도 보다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졌다고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하고 싶고 하기 싫은지 등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었으며, 이를 표현하는 능력도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기관 선생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이 말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묻기부터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부산해운대도서관 강사).

처음에 아이들이 활동자료의 질문에 답을 할 때 그냥 좋다 나쁘다 등 자신의 의견을 세밀하게 표현하지 못하였고 표현하는 단어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모두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당연하고 먼저 발표하고 싶어 합니다. 책을 읽고 난 후 책 속 주인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돌아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진전어린이집 담당자).

다. 언어능력이 향상되었다

일반적으로 독서프로그램은 흥미롭고 즐거운 언어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발달시키며, 복잡한 문장을 습득하게 하고 이야기의 이해력을 높여주는 등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준다.¹⁶⁾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서도 아동의 언어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들은 ‘글을 잘 몰라 책읽기를 싫어했던 아이가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은 더듬더듬이라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토론을 하다 보니 이야기에 집중해야 하기에 이전보다 듣고 말하는 능력이 발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읽기능력과 듣기능력이 향상된 것 같다. 어휘력이 다양해졌다. 책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졌다는 등 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참여강사와 사서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는 글쓰기를 힘들어하고 책을 잘 읽지 못해서 힘들게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요즘은 책을 제대로 읽게 되었고, 자신감도 생기고 매우 당당한 아이가 되었다. 자기주장을 똑 부러지게 하고 문장력도 많이 향상되었다. 책을 아주 잘 읽어온다(부산 남구도서관 강사).

책 내용 이해력부분에서 학년과 무관하게 책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쁜 아이, 슬픈 아이, 부자된 이유 등 단순한 이해력뿐이었는데요, 이제 입장을 바꿔 내가 선인장이 아닌 그 옆에 더불어 피어난 나팔꽃이었다면 꽃꽂하게 건넬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도 쏟아내는 아이로 변했습니다(울주도서관 강사).

프로그램 전후에 참여아동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고 변화를 검증한 결과는 아니지만, 면담에서 아동의 읽기, 쓰기, 말하기, 이해하기 등의 언어능력이 향상된 것이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의 공통된 의견으로 나타나 독서프로그램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언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학교 국어성적이 향상된 아동도 있었고, 학교 독서행사에서 상장을 받은 아동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스스로 책을 읽는 아동이 없었는데 몇몇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책을 읽고, 학교독후감대회에서

16) 한유진, 그림동화책 읽기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과 유아의 이야기 구성 능력(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pp.2-3.

〈표 11〉 아동의 정서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

구 분	사서		강사		기관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58	66.7	68	64.8	57	65.5
그렇다	27	31.0	36	34.3	27	31.0
보통이다	2	2.3	1	1.0	1	1.1
그렇지 않다	0	0.0	0	0	1	1.1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0	0.0	0	0.0
무응답	0	0.0	0	0.0	1	1.1
합계	87	100.0	105	100.0	87	100.0

우수상을 받아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말썹만 부리던 아이에서 글을 잘 쓰는 아이로 변해갔다(주소망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한 친구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국어성적이 올랐고 두 친구는 독서행사에서 상장을 받았다고 기뻐했다(경북교육정보센터 강사).

라. 정서적 변화가 보였다

이 독서프로그램은 아동의 책과 독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여 책읽기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나 독서 측면뿐만 아니라 참여아동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는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사업에서 운영한 독서프로그램이 아동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사서의 97.7%, 강사의 99.1%, 기관 담당자의 96.5%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들이 독서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면담과 운영사례보고서에서 전하는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이며 풍부하다. 낮은울타리 지역아동센터 기관교사는 “책으로 놀이를 하고, 소리내어 읽어보며 자신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면서” 아이들이 친척히 달라졌다고 한다. 기관 담당자의 운영사례보고서에 따르면 “책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열어,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형편을 견디기 어려워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간 엄마를 욕하는 할머니와 그 엄마를 그리워하며 사는 ○○이, 부모가 알코올과 우울증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어 거리를 헤매던 ○○이, 네 살 때 암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는 ○○에게 책읽기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고 그들의 성장을 통해 자신을 다독이는 과정”일 것이라고 말한다. 경북영덕공공도서관 사서는, “쉽게 풀어놓지 못했던 아동들의 일상과 마음을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서 기관에도

도움이 되었고 아동들도 조금이나마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많은 강사와 사서들이 기관에서 처음 아동들을 만났을 때 놀라움과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등을 돌리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등 아동들은 낯선 사서와 강사를 경계하였다. 하지만 아동들은 아주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다. 운영사례보고서에는 아동들이 마음을 열기까지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아이들과의 첫만남은 당혹스러웠다. 귀엽다고 어루만졌다가 내쳐지고, 두 남자 아이가 공룡책을 사이에 두고 격하게 싸우는 것에 놀라고, 집중하라는 소리를 약 50번은 외친 새로운 세상이었다. ...나는 자세를 낮추고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가기로 다짐하였으나,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만난 아이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놀란 것이 사실이었다. “아이들이 이제 집중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분위기 좋았죠?” 설레어서 강사님께 말씀드리면 바로 다음 주에 배신당해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울고, 왜 워크숍에서 들은 빛나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걸까, 내가 그렇게 모자라는가 자책하기도 하였으나, 우리는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 들었나보다. 아이들의 퐁퐁 튀는 생각을 신기해하고, 나의 질풍노도시기를 되돌아보고, 반복되는 내쳐짐에도 쉬지 않고 들이댔더니, 날 거절하던 손으로 목에 매달려 업어 달라 조르는 영광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우리와 아이들이 서로에게 익숙해지듯 아이들은 책과 가까워졌다(미추홀도서관 사서).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사계절을 함께 지내봐야 안다던데 세 계절을 함께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를 파악하였나 보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말수가 적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눈에 띄게 발표를 잘한다. 처음 아이들을 보았을 때, 단지 소극적인 성격으로 말수가 적은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눈을 맞추고 웃음을 건네며 아무리 말을 걸어도 한두 달 동안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제풀에 지쳐 포기하려할 때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선생님 왔다’며 반기는 모습에 ‘이런 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다. 첫 수업 시간에는 동화를 읽어 줘도 시큰둥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수업 끝나면 내 책 달라며 소리를 높이고 설문지작성에서 내년에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동그라미를 칠 때 울컥하는 마음도 들었다(광주송정도서관 강사).

아동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책읽어주기와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비롯한 강사 및 사서의 헌신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특히나 책읽어주기는 아동과 어른이 관계를 맺는 방법 중 하나로 아동들은 책이야기에 문혀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된 것이다. <겍쟁이 빌리>를 읽고 책만들기를 하며, ○○이는 아버지가 직장일로 주말에만 오시는데 가족 사이가 좋지 않아 화목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는 금돈이 많이 생겨 사고 싶은 장난감을 샀으면 좋겠다고 했다. <빨간 부채 파란 부채>를 읽고 빨간 부채로 무엇을 길게 하고 싶은지 묻자 ○○이는 돈을 길게 해서 돈을 많이 갖고 싶다고 했으며, ○○는 집이 좁아서 집을 길게 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이는 학교 급식 식판을 길게 해서 밥을 많이 먹고 싶다고 했다(상주공공도서관). 5학년 여자아동은 왕따에 관한 책을 읽고 자신도 왕따를 경험했었고, 마음을 많이 다쳤다고 했다(경상북도도립영덕공공도서관).

사서와 강사들은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던 아동들이 책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마음을 열게 되면서 아동들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한다. “수업 중 이야기가 많아졌고 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였으며 분위기도 밝아졌다. 목소리 크고 산만했던 여자아이는 프로그램 끝날 무렵에는 착한 모범생이 되어있었고, 참여에 소극적이던 아이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강사도 사서도 놀라고 뿌듯” 했다고 하였다(경상북도도립영덕공공도서관).

아동들과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보내는 기관 담당자들의 관찰에서도 책읽기를 통한 아동의 정서 변화가 구체적이면서도 다각적으로 드러난다. 이 사업의 초기에 기관 담당자들이 참여아동에 대한 특성을 기록한 사전보고서에 의하면,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및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자존감이 낮고 성격이 거칠며 때로는 극단적인 공격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정서적으로 산만하고 주의집중이 안된다. 참을성과 배려심이 부족한 아동들이 많은 편이다. 일부 아동이 떼쓰기, 폭력, 울기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분노조절이 안된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자존감이 낮으며 소극적이다. 불만이 많으며 따뜻한 사랑에 익숙하지 않아 선생님이 다가서면 경계부터 하는 등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다 등의 참여아동의 정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이 경험하는 빈곤환경이 아동에게 건강한 정서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¹⁷⁾를 뒷받침하듯 이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참여아동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아동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아동의 정서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기관 담당자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들이 예전보다 많이 활발해졌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공격적이던 아동들이 친구들과 간의 다툼이 줄어들고, 타인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등 배려해주는 마음이 전보다 많아진 것 같다. 동료들과 협력할 뿐 아니라 관계형성도 좋아졌다.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다. 집중력이 좋아졌다 등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정서와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참여 아동들의 정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항상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 떼쓰던 ○○이라는 초등학생 1학년 아동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17) 박현선·정익주·구인회,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2006), pp.303-330.
: 강희경, 빈곤가족의 학령기 아동발달(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1); 이지혜, 저소득층 가정아동의 자존감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효과(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정문자·어주경,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0권 제2호(1999), pp.21-40.

회기를 거듭할수록 울며 떼쓰는 모습은 점차 줄어들었고 점차 칭찬받는 사랑스러운 아동으로 거듭났다. 수업태도도 좋아졌으며, 친구들과도 그렇게 많이 싸우고 티격태격하던 아동이었는데 친구들과 싸우는 일도 많이 찾아들어 다른 아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 독서 프로그램을 통하여 내면을 더 키우고, 자신의 마음 또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서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내외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자라난 것 같아서 뿌듯하다(푸르뫼Mom&Kids 담당자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평소 공격적이고 속의 분노를 참지 못했던 아이가 책을 읽고 생각나누기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책속의 이야기들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준 같아요(맑은웃음공무방 담당자).

이러한 아동들의 정서변화에는 특히 '책읽어주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에 참여한 아동은 유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다양하고 학년별 비중도 고루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셔서 좋았다'는 응답은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학동기 아동들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책읽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산만하던 아동들도 어느새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책읽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NIE, 바둑 등 시간표가 뽁뽁하게 짜여 있어요. 그런데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전문 강사가 책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책을 매개로 한 수업이 아이들한테 변화를 주는 거 같아요. 그렇게 난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현수막 아래 동그랗게 앉아서 책을 읽어주면 너무 좋아해요. 휴지통 집어던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게임하면서도 다리를 떠는 애들이 10~15분 동안 책읽어주는 거를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서 다른 수업하고는 다른 거 같아요. 그게 감동적이예요(중랑구립도서관 사서).

또한 〈표 4〉에 따르면, 많은 참여 아동들이 '책읽기 선생님은 우리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고 했다. 책읽기로 다가온 선생님이 아동들에게는 '나를 알아주고 지지하는 어른'으로 여겨지고, 6개월이 지나면서 아동들은 마음을 열고 자기표현도 하고 책에도 관심을 보이게 된다. 한 1학년의 수기에는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잘한다고 해서 저는 변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책읽어주기의 정서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아동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게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도 확인된다. 기관 담당자나 강사의 보고에 따르면, 자신감이 없고 무기력해보이던 아동들이 자신의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독서는 당신에게 꿈을 줍니다'라는 말이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을 통해 재현되고 있었다.

〈표 12〉 아동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 고조 여부

구분	사서		강사		기관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36	41.4	46	43.8	49	56.3
그렇다	32	36.8	49	46.7	27	31.0
보통이다	18	20.7	10	9.5	9	10.3
그렇지 않다	1	1.1	0	0.0	1	1.1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0	0.0	0	0.0
무응답	0	0.0	0	0.0	1	1.1
합계	87	100.0	105	100.0	87	100.0

수업초반에는 자신의 진로, 꿈, 희망 등에 대해서 말하기 힘들어하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등의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고 표현하면서 꿈을 구체화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강남 도서관 강사).

꿈이 없었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수업을 통해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피아노를 쳐줄게, 베토벤, 쇼팽 등에 관한 책을 읽고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 고희, 김기창, 김홍도, 이중섭에 관한 책을 읽고 화가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 인권이 뭐예요 책을 읽고 인권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있었다(대전유성도서관 강사).

3.3 아동의 도서관에 대한 경험과 관심

도서관과 책읽기 프로그램은 아동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78.2%(68명)의 사서들이 이 프로그램이 아동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강사의 90.5%, 기관 담당자의 87.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사서보다는 강사 및 기관 담당자가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들의 설명에서 아동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먼저, 사서들은 도서관에 오지 않았던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카드를 만들고 책을 직접 대출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주말에 도서관에 갔었다고 사서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제천학생회관 사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친해져서 도서관 사무실로 불쭙불쭙 찾아오는 아이들이 생겼다’고 했다. 양천도서관 사서는 ‘초반기 수업 중에 유독 산만하고 폭력적인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매주 토요일 아빠와 도서관에 와서 사서를 찾는다’고 했다. 금정도서관 사서는 ‘도서관에 오면 반가운 사서선생님들이 항상 보

이니까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였다. 아동들에게 찾아갈 아는 사서가 있는 도서관은 그 이전의 도서관과 다를 것으로 보인다.

기관 담당자들과 강사들도 이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면서 도서관을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을 대출하는 등 도서관이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담당자와 강사들의 다음의 이야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을 자주 가면서 도서관에 대한 높은 벽이 허물어지고 도서관을 쉽게 이용하며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가까운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그루터기아동센터 담당자).

도서관에 다녀와 회원카드를 만들고 책을 직접 빌려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고 간혹 책을 빌려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과주보육원 담당자).

특히 프로그램에서 구성한 도서관체험활동은 아동들이 공공도서관의 존재를 알고 가까워지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었다. 아동들은 이 도서관체험활동을 통해서 '도서관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책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배웠다. 퀴즈대회에 참가해 상을 받고 원화전시를 구경하고 자료실에서 직접 책을 찾아보면서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배웠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그러면서 도서관을 가깝고 친근하게 여기며 가고 싶어 한다. 부산맹발동무도서관 사서와 청주기적의 도서관 사서의 이야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이 도서관을 가깝게 느낀다.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다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이들은 더 생기있고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도서관에 가는 것이 더 좋아요", "도서관 가려고 학교 마치고 헬레벌떡 뛰어 왔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한다. 도서관에서 지내는 모습도 처음보다 지금은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런 모습이다(부산맹발동무도서관 사서).

처음 도서관 열람실에 들어서는 아이들에게서 두려움과 호기심, 경계의 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회차가 거듭되면서 도서관을 이제 편하고 익숙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청주기적의 도서관 사서).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독서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운영하는 '2011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참여한 90개 소외계층 밀집기관에 소속된 아동 1,6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독서프로그램의 효과와 의미를 다각적으로 고찰하고자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관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과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소외계층 아동의 독서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결과 '책읽기 프로그램 참여 이후 예전보다 더 자주 책을 읽고 책이 좋아졌다'는 데 83%의 아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들의 아동에 대한 관찰에서도 프로그램 참여 후 아동이 책과 가까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독서프로그램은 아동의 독서의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아동의 77.9%가 '책읽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가 활발해진 것 같다'고 하였으며, 아동의 74.0%가 '책읽기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친구들과 서로 친해졌다'고 하였다. 또한 사서의 97.7%, 강사의 99.1%, 기관 담당자의 96.5%가 책읽기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강사, 사서, 기관 담당자의 관찰과 경험에서도 독서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서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감, 관계형성, 집중력, 양보와 배려 등 아동의 전반적 정서와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아동의 정서변화에는 책읽어주기를 비롯한 책을 통한 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반적으로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78.2%는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 아쉽다고 하였고, 아동의 85.1%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기를 희망하였다. 독서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넷째, 독서프로그램은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경험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51.4%가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도서관에 처음 가보았으며, 아동의 70.3%는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사서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기간 중에 57.6%의 아동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았으며, 86.2%의 아동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사서들의 관찰 및 경험에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의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이 생겨나고, 독서프로그램 참여 후 도서관을 가깝고 친근하게 여기며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도서관이 운영하는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소외계층 아동의 참여 경험은 책

과 독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하며, 아동의 도서관의 이용에 있어서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를 통해서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아동의 당면한 문제를 완화하고,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문화, 정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도서관이용과 경험이 확대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이 매개가 되어 진행되는 독서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는 소외계층 아동의 독서를 지원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이 지속해야 할 근거와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도서관서비스가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한편, 우리 연구팀은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도서관이 운영한 독서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아동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도서관이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서관과 사서의 존재를 알리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대되었다. 또한 사서가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직접 경험하게 됨으로써 도서관의 가능성과 영향력, 사서로서의 책임감과 직업적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도서관 측면에서의 주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8개월간에 걸쳐 24회 진행된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장기적 운영과 함께 향후 아동의 장기적인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기관유형이나 참여아동의 연령 등 세부 특성별로 그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도 요구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